

www.cdc.go.kr

is.cdc.go.kr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안내

쯔쯔가무시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www.cdc.go.kr)

쯔쯔가무시증 예방수칙 안내

관련부서 연락처

의료기관은 의심환자 진료시 관할 보건소를 통해 감염병 웹신고시스템(<http://is.cdc.go.kr>)으로 신고

- **쯔쯔가무시증** 의심환자 신고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
043) 719-7165, 7176
- **쯔쯔가무시증** 역학조사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과
043) 719-7192, 7201
- **쯔쯔가무시증** 관리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
043) 719-7133, 7136
- **쯔쯔가무시증** 진단 (환자검체)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인수공통감염과
043) 719-8461, 8462, 8475
- **쯔쯔가무시증** 전파 매개체 (진드기 검체)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질병매개곤충과
043) 719-8561~69



. 쯔쯔가무시증이란?

알아두기

쯔쯔가무시증 주요 매개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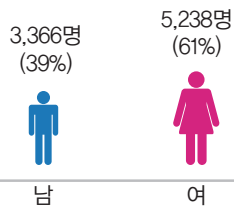
〈할순털진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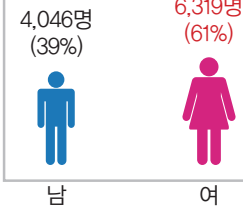
〈대잎털진드기〉

쯔쯔가무시증은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쯔쯔가무시균은 주로 **풀숲**이나 **들쥐**에서 기생하던 **털진드기 유충**이
사람을 무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됩니다.

2012년



2013년



[2012-2013 쯔쯔가무시증 성별 발생현황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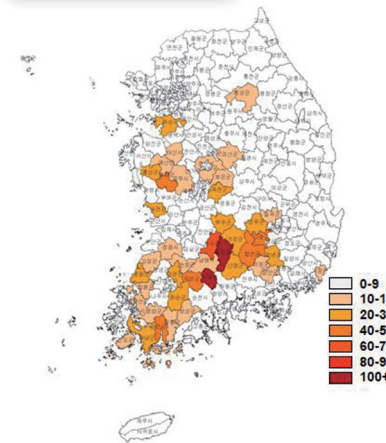


- * 매개 털진드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가을철(9~11월)**에 주로 발생합니다.
- * 작업이나 야외활동시 진드기가 서식하는 수풀에 빈번히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 **농촌지역**에서 **여성**들에게 더 많이 발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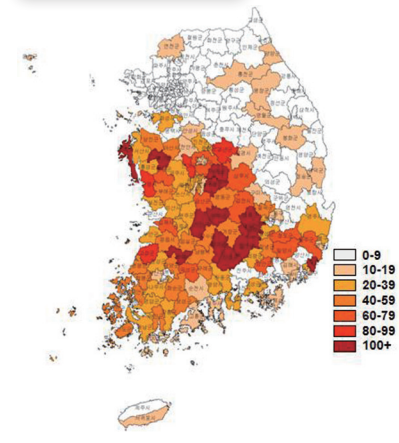
알아두기

지역별 10만명당 쯔쯔가무시증 환자 발생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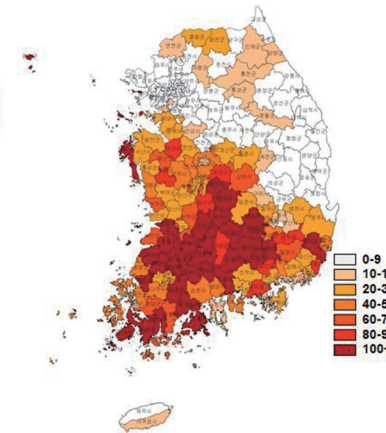
2003년



2008년



2013년



다발생 지역(전북, 충남, 전남, 경남 지역)의 환자 발생률
 증가가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찻가무시증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이런 행동은 위험해요!

알아두기

찻가무시증 임상 증상



01 고열, 오한, 심한 두통, 근육통, 피부발진, 구토, 복통, 기침 등

02 가피(검은 딱지) 형성 :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부위에 발생
 - 우리나라의 경우 겨드랑이(24.3%) > 사타구니(9.3%) >
 가슴(8.3%) > 배 등 순서

03 피부발진 : 반점형태의 발진이 몸통과 사지에 발생

04 일부 혹은 온몸의 림프절 종대

* 찻가무시증은 1~3주의 잠복기가 있으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 0~30%의 사망률을 보여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피부를 노출한 채로
 작업이나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



02
 돛자리를 깔지 않고
 풀숲에 앉거나 눕는 경우



03
 풀숲(진드기 서식지)에
 들어가는 경우



04
 작업이나 야외활동 후 바로 씻지
 않거나, 옷을 세탁하지 않는 경우

찻찻가무시증 예방수칙

예방수칙을 항상 숙지하여
 찻찻가무시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알아두기

작업 전 주의사항

01



작업복과 토시를 착용하고
 장화를 신는다.

02



야외활동 및 작업시 기피제
 사용이 일부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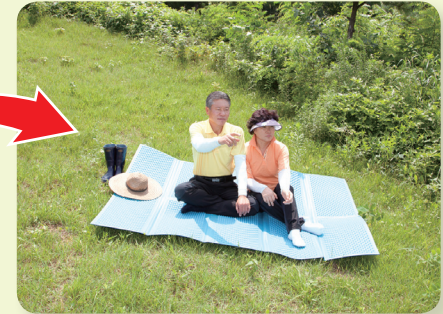
* 작업복이란?

- 일상복과 구분하여 **작업 시에만 착용하는 옷**
- 피부노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긴팔, 긴바지 옷**

알아두기

작업 중 주의사항

03



풀밭에 옷을 벗어 놓고 직접 눕거나 앉지 않고
 돛자리를 깔고 앉는다.

04



풀숲에 앉아서 용변을
 보지 않는다.

05



개울가 주변 풀밭은 피하며,
 작업지 근처 풀을 베는다.

03

찻찻가무시증 예방수칙 작업시 주의사항

뜨뜨가무시증 예방수칙

알아두기

작업 후 주의사항



야외 활동 후 즉시 입었던 옷을 털고, 반드시 옷을 세탁한다.



집에 돌아온 후 바로 샤워나 목욕을 한다.



주변 식물과의 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길 중앙으로 걷는다.



고열, 오한, 두통, 발진, 가피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해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다.

작업 전 주의사항

- ① 작업복과 토시를 착용하고 장화를 신는다.
- ② 야외활동 및 작업시 기피제 사용이 일부 도움이 된다.

작업 중 주의사항

- ③ 풀밭에 옷을 벗어 놓고 직접 눕거나 앉지 않고 돛자리를 사용한다.
- ④ 풀숲에 앉아서 용변을 보지 않는다
- ⑤ 개울가 주변 풀밭은 피하며, 작업지 근처 풀을 벤다.

작업 후 주의사항

- ⑥ 야외 활동 후 즉시 입었던 옷을 털고, 반드시 옷을 세탁한다.
- ⑦ 집에 돌아온 후 바로 샤워나 목욕을 한다.
- ⑧ 주변 식물과의 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길 중앙으로 걷는다.
- ⑨ 고열, 오한, 두통, 발진, 가피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해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다.

Q&A

01 프프가무시증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프프가무시증은 감염 후 보통 1~3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후 발생하며, 발열, 두통, 오한, 구토, 발진, 근육통, 기침 등이 나타나고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부위에 가피(검은 딱지)가 형성됩니다.

02 프프가무시증의 치료법은 무엇인가요?

감염초기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 시 완치 및 사망예방이 가능하지만, 단순 감기몸살로 착각하여 치료시기를 놓치기 쉽기 때문에 두통, 발열, 오한, 발진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해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합니다.

03 프프가무시증은 왜 가을에 많이 발생하나요?

프프가무시증은 프프가무시균에 감염된 털진드기의 유충이 사람을 물 때 발생합니다. 여름철에 산란한 털진드기 알이 초가을부터 본격적으로 부화 할 때 동물이나 사람의 체액을 섭취하며 성장하기 때문에 주로 가을(9~11월)에 프프가무시증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04 프프가무시증은 봄에도 걸리나요?

진드기 종에 따라 봄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남부 지역에서 서식하는 활순털진드기에 의해 가을에 집중하여 발생하지만, 북부에 서식하는 대잎털진드기에 의해 봄과 가을에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월별 분포를 보면 90% 이상이 대부분 가을철에 집중되어 발생하고 있어 다른 계절의 감염가능성은 낮습니다.

05 한번 감염된 사람이 또 감염될 수 있나요?

프프가무시증에서 회복된 환자는 동일한 혈청형에는 면역력을 획득하게 되나, 다른 혈청형의 균에 재감염될 가능성이 계속 존재합니다.

06 프프가무시증에 걸린 사람을 통해 사람간 전파가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프프가무시균에 감염된 털진드기의 유충에 물리는 경우에만 감염이 되기 때문에 사람간의 전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